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 27:11-15]

-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뱃속에 가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뱃속은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잘 풀린다고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자기 뜻을 좇으면서도 번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시에서도 이런 사회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항해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항해를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항해하기에 알맞은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속으로 ‘거봐라! 내 생각이 맞지!’하며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백부장의 뜻을 따라서 항해에 나섰고, 얼마 안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잘 풀린다고 생각할만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뜻을 따라나선 길이 아니라면, 그 마지막은 바울이 탔던 배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길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진로를 수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날마다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점검 합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2.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 같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매일 하루를 마치기 전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